



드루파2008을 통해 본 인쇄산업시장 전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와 월간 인쇄계가 주최한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소피텔엠배서더호텔에서 인쇄 및 관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드루파 2008을 통해 본 인쇄산업시장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회째를 맞은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는 인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 세계 인쇄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쇄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지금 인쇄산업은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인쇄가 고전적인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인쇄산업은 기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쇄산업인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안정웅 월간인쇄계 발행인은 "이번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는 각 인쇄분야에 있어 더욱 깊은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드루파 이후 향후 4년 동안 인쇄산업을 이끌어 나갈 제품과 그 기술들을 만나보고 향방을 점쳐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쇄인은 물론 기자재 공급업체와 언론계, 인쇄단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난관 극복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올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활동하는 한편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인쇄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인쇄종주국으로써 세계적으로 빛나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유산과 세계인쇄 사료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가치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과 안정웅 월간인쇄계 발행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타임 잉크사의 넬슨 룩 프로덕션 디렉터와 컴포즈시스템의 레스 보벤란더 디렉터는 기초연설을 통해 드루파 2008에서 소개된 신기술 및 제품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 출판시장과 인쇄산업시장에 영향을 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부는 디지털시장의 신기술 및 시장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CGS의 Christoph Thommensen 세일즈 디렉터는 컨벤셔널 및 디지털인쇄를 위한 최적의 하이브리드 교정의 관계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로지트코퍼레이션의 김봉구 상무는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디지털 신기술 및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에 HP의 인디고5500 등의 제품군이 적합하며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도리코의 백성원 팀장은 넥스프레스와 디지털마스터가 향후 인쇄산업시장의 변혁을 주도할 새로운 솔루션이며 향후 디지털인쇄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에는 프리프레스시장의 신기술 및 전망을 주제로 아그파코리아의 김정희 부장은 경제적인 무현상 CTP판재인 AZURA TS를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생산하게 되어 친환경 추세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재가격의 7% 인하 및 판을 10%이상 더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득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코아트워크의 안토니 콘웨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지원 매니저는 '디자이너와 프리프리스를 위한 에스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자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라벨 및 태그 부문, 디자인부문을

비롯하여, 연포장과 카톤 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부는 프레스시장의 신기술 및 전망을 주제로 만로랜드코리아의 케이티 창 부사장은 드루파2008 하이라이트와 달라진 만로랜드에 대해 소개했다. 163년의 전통을 가진 만로랜드는 고객을 일상적인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만로랜드의 모든 인쇄기는 최첨단 기술에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로랜드의 인쇄기는 생산효율성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늘리는 부가가치 인쇄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모리의 히로유키 스기야마 영업기술부 부장 겸 기술감수이사는 드루파2008 리포트와 고모리의 5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고모리의 인쇄기들은 부가가치인쇄와 POD인쇄에 뛰어나게 대응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오프셋과 POD의 장점을 공존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텔베르그 프로덕트팀의 강성민 부장은 프리넥 통합워크플로에 대해 발표했다. 프리넥은 통합 솔루션으로 전공정에 걸친 통합화 및 중앙 JDF, 고객과의 통합화를 지원하며 오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텔베르그 프로덕트팀의 이근성 부장은 '하이텔베르그 인쇄기 드루파 이노베이션'을 설명하면서 프레스센터 중앙 인쇄기 컨트롤 장치, 특수 인쇄 및 패키징 인쇄 솔루션, 상업인쇄 인쇄 솔루션과 소형 인쇄의 디지털 솔루션으로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인쇄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 창출은 물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왼쪽부터 신도리코 백성원 팀장, 고모리 스기야마 부장, 타임잉크사 넬슨 룩 디렉터, 인쇄정보기술협회 김진배 회장, 컴포즈시스템 보덴란더 디렉터, CGS크리스토퍼 디렉터, 아그파 김정희 부장, 안혜정 월간 인쇄계 기자, 한국하이텔베르그 김범식 사장, 이근성 부장, 강성민 부장

